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가 주최하는 2009 광주평화연극제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등 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해부터 '평화연극상'을 제정하는 등 변화를 꾀했던 평화연극제는 올해 오성환(푸른연극마을 대표)씨를 예술감독으로 선임하고 행사를 준비했다.



인천극단 '십년 후'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틈새’와 ‘차이’ 되돌아보기

광주 평화연극제 열린다

23~30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日·광주극단 같은 작품 한무대

‘위안부’ 다룬 ‘특급호텔’도 눈길

올해 연극제의 주제는 ‘사間-사이, 사이 틈바구니를 찾아서’다. 고정관념과 획일화된 가치관을 벗어나 그 ‘틈새’와 ‘차이’를 되돌아 보자는 의미에서 정했다.

참가작들은 요즘 유행하는 강박적인 웃음 코드의 가벼운 연극 대신 다소 묵직한 울림을 주는 작품들이다. 특히 올해는 일본과 광주 극단이 같은 작품을 한 무대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준비, 눈길을 끈다.

첫번째 무대에 서는 인천극단 '십년 후'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23일)는 '늙은 부부 이야기'의 위성신씨가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아내와 함께 치매 병원을 운영하는 주인공의 병원에 아내에게조차 숨기고 싶었던 어머니가 입원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서울 극단 '그림자'의 '사람은 사람에게 늑대'(25일)는 지하철에 뛰어들어 죽음을 택한 한 여자의 자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각기 다른 입장에 선 사고 목격자, 기관사, 담당 경찰 등 등장인물들의 삶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서울 극단 '바람꽃'은 늙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배 한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할아버지와 그가 사랑하는 주막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남도'(26일)를 무대에 올린다.

대구 극단 '온누리'의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이



극단 '초인'의 '특급 호텔'

일어나'(27일)는 자매 관계인 두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한창 잘 나가던 때 자동차 사고로 은퇴한 언니, 그 언니를 돌보며 살게 된 동생사이의 비밀과 질투 등이 섬세하게 그려진다.

지난해 '평화연극상' 수상단체인 극단 '초인'을 특별초청해 무대에 올리는 '특급 호텔'은 미국인 극작가 라본느 윌러의 눈으로 본 위안부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평화연극상 수상작이었던 '선녀와 나무꾼'의 독특한 주제와 연기에 매료됐던 연극팬이라면 연출가 박정희가 풀어낸 '위안부 문제'에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듯하다.

일본 극단 '호크게이'와 (사)광주연극협회가



서울 극단 '바람꽃'의 '남도'

함께 공연하는 '이 길은 언젠가 걸은 길'(29~30일)은 똑같은 희곡을 한 무대에서 '비교 감상' 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말기 암 환자 시설에서 도망쳐 나온 남·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야기인 이번 작품의 원작자는 베르나르 마노루다. 카토 나오키가 연출과 주인공을 맡았으며 광주에서는 이행원씨 연출로 이기인·경정아씨가 출연한다. 일본 극단 공연 후 곧바로 광주팀이 무대에 오른다.

전석 1만 5천원, 사랑티켓 참가작이며 현혈증을 제출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마이비 카드 결제시 30%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제 시민 심사위원단 모집

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최우수 작품을 선정, 광주평화연극상(상금 2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작품 심사는 연극협회 관계자와 시

민 심사위원이 함께 맡는다.

집행위원회는 18세 이상으로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 2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모집기간은 19일까지며 심사위원에게는 2009광주평화연극제 전체 관람권과 기념품을 증정한다.

디자인 마당에 '운주사 천불천탑'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THE CLUE
더클루는
없다

디자인비엔날레 D-3

화순 운주사 천불천탑의 단아한 아름다움이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0월11일)를 수놓는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전시관인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관 일대 대표소와 매점에 운주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상품들이 설치됐다.

이탈리아 건축가인 시모네 카레나(홍익대 교수), 마르코 브로노(건국대 교수)가 설계한 이들 상품들은 운주사의 천불천탑을 천과 기와 등으로

표현했다.

남도의 문화 원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게 특징이다.

이들 작품은 분홍색, 파랑색, 붉은색 등 천의 색깔이 화려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건축가들은 또 제1전시관 입구에 기와로 만든 스크린을 만들어 전시를 홍보하고, 불법 광고 간판을 모아 비즈니스 라운지를 만드는 등 톡톡 튀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전시관 연결 통로에 대나무 50개를 연결한 대나무 다리를 만들어 고풍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운주사를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편의시설은 또 하나의 전시작품으로 관람객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와 스크린

‘행복한 문화공연’에 초대 합니다

‘빛고를 천원의 행복’

매월 셋째주 월요일 공연

‘매월 한차례 행복한 문화공연에 초대합니다.’

올해 출범한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빛고를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한차례(매월 셋째주 월요일)씩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첫번째 무대 '9월 행복 나눔 음

악회'는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이린왕자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중장단 '아시아 여성참배심어즈 루스노바'(이하 루스노바)를 꾸렸고, 이번 첫 무대는 중장단 상임지휘자 김사도(사진)씨의 '뮤직 스토리'로 꾸며졌다.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음악



행사에서 음악 이야기와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루스노바’

는 '에델바이스' '청산에 살리라' '피가로의 결혼' '흑인영가' 등 아름다운 곡을 들려준다.

‘빛고를 천원의 행복’은 앞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하고,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춘배 시인 ‘詩·에세이집’ 동시 출간

자아성찰·문명비판 등 담아

계간 '문학춘추' 편집위원과 다형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춘배(60·사진)씨가 시집과 에세이집을 동시에 출간했다. 시집 '길 찾아가는 길' 에세이집 '침묵연습'.

시인이자 수필가인 이씨는 빠저린 자아성찰을 통해 찾아가는 인생탐구의 끝없는 여정을 '길 찾아가는 길'이라 명명하고 시인 자신, 가족-사회-

자연-세계로 외연을 확대해가며 구도자의 마음을 담은 시 80여편을 엮었다.

주제별로 '길 찾아가는 길' '모래알의 사랑' 등 5부로 나뉘 엮은 시집에는 인간사랑, 생명사랑, 지구사랑을 추구하는 시인의 시 정신이 잘 배어 있다.

에세이집 '침묵연습'에는 깊이 있고 풍부한 체험과 교양을 바탕으로 자아의 발견과 의미 확인,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소재로한 50여편의 짧은 글을 담았다.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류 문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전하는 글들은 주제가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서 설득력이 있고 읽히는 글쓰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씨는 계간 '백두산문학'(2002년·시)과 계간 '문학춘추'(2003년·수필)로 각각 등단했으며 광주문인협회, 문학춘추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